

BECAUS

CHUNG-ANG UNIVERSITY

2018

BECAUS NEWS



당신의 도전이 중앙의 100년을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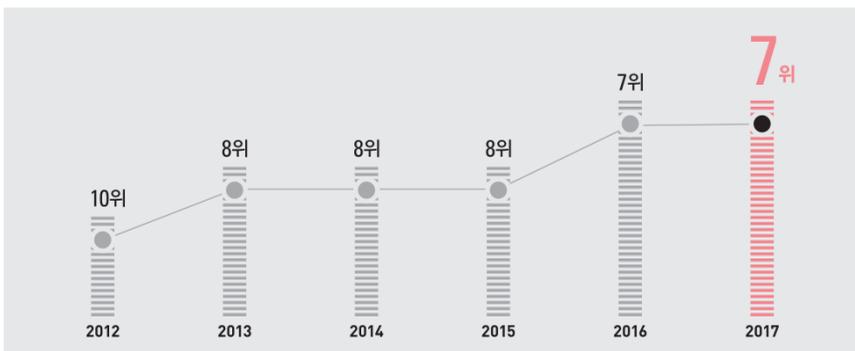
내년에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중앙대는 대학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며 일관된 대학 정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대학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개교 100주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위한 NEW VISION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가 인정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세계적 연구집단 육성', '최적의 교육 및 연구환경 조성' 등을 실현할 것이다. 중앙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다.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로서 교양과 전문적 지식을 기르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열린 세계관을 지닌 인재를 의미한다. 2018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중앙대학교는 글로벌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 혁신을 이어간다. 이와 함께 할 수험생 여러분의 소중한 꿈은 중앙의 100년 역사와 미래가 될 것이다.

국내 최초! 정시 수능성적 비교상담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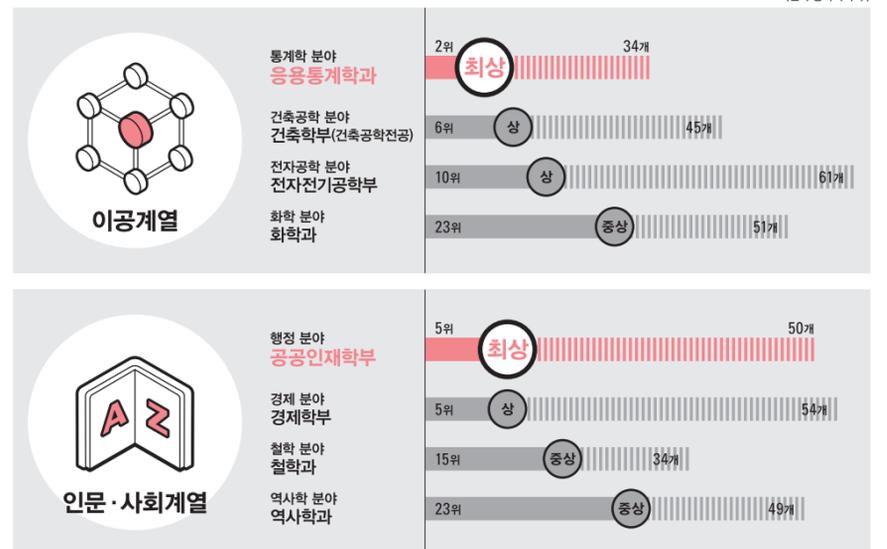
중앙대는 정시모집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합격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입시기관별 합격 예측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수능 성적 상담을 제공하는 'CAUgo' 시스템을 개발하여 2018학년도 정시모집 상담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중앙대 입학처에서 성적 상담(방문, 전화)을 받는 수험생들은 중앙대 자체 데이터뿐만 아니라 김영일교육컨설팅, 디지털대성, 유웨이중앙교육 등의 합격예측결과를 한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CAUgo' 시스템 도입으로 수험생들은 입시기관별로 합격예측 시스템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됨은 물론,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중앙대학교 정시입학상담은 2017. 12. 20(수)~2018. 1. 5(금)(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진행되며, 중앙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네이버예약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2년 연속 종합 7위



중앙일보는 6개 계열(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학, 예체능) 중 4개 이상 계열을 가진 대학 61곳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종합평가 지표는 교육여건(13개 지표, 100점), 교수연구(10개 지표, 100점), 학생 교육 및 성과(6개 지표, 70점), 평판도(4개 지표, 30점)로 4개 부문 33개 지표, 300점 만점으로 구성되었다. 2016년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6위에서 10위까지 대학 중 본교는 지난해와 동일한 7위를 유지했다. 부문별로 보면, '교수연구' 부문이 전년도 6위에서 한 단계 상승한 5위를 차지했다. 이는, 교수당 교외 연구비와 인문 사회 저역서 발간 지표에서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 국제논문 피인용 지표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육여건' 부문에서는 세입 대비 기부금 비율이 6위로 크게 상승했다.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여러 모금 행사를 통한 결실로 보인다. '학생성과' 부문에서는 지난해부터 중요도가 높아진 '창업교육 비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취업과 더불어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에 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응용통계학과, 공공인재학부 최상 등급



* 이공, 인문·사회계 공통사항 : 최종 등급은 지표의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10%는 '최상', 25%까지는 '상', 50% 이상은 '중상'으로 분류함
* 평가 기준 : 교수연구(교수 1인당 국제논문, 연구비 등)와 학생교육(교수 1인당 학생 수, 현장실습 참여율, 취업률 등) 세부항목의 배점을 합산
* 평가 내용 : 응용통계학과_교수 논문 1편당 인용 횟수가 가장 많고, 교원당 자체연구비·취업률 지표 등이 우위에 있음
공공인재학부_학생당 등록금 대비 장학금, 취업률, 유지취업률 등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

AACSB 인증 획득(경영학교육 국제인증)



중앙대는 최근 세계적인 경영교육 프로그램 인증 기관인 AACSB(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로부터 '경영학교육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중앙대는 이번 경영학교육 국제인증으로 경영학부 학사과정, 일반대학원 경영학 석사 및 박사과정, 경영전문대학원(MBA) 과정에 대한 경영학 교육프로그램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AACSB(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International : 국제 경영대학 발전협의회) 인증은 경영학 분야의 가장 권위 있고 대표적인 국제 인증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버드, 스탠포드, MIT 등 전 세계적으로 5% 이내의 명문 경영대학(2017년 11월 9일 현재 53개국 총 796개 대학 - AACSB 홈페이지(http://www.aacsb.edu/) 참조)만이 AACSB 인증을 획득했다.

취업-창업 지원역량 평가 '청년드림대학' 최우수대학

중앙대가 '최우수 청년드림대학'에 새로 진입했다. 11월 27일 동아일보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리서치회사인 마크로밀엠브레인과 함께 실시한 2017년 청년드림대학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앙대 등 10개 대학이 최우수 청년드림대학으로 선정됐다. 올해 처음으로 최우수 대학에 선정된 중앙대는 대학의 역량 평가와 취업률 등에서 고르게 우수한 점수를 받아 최우수 대학에 선정됐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청년드림대학 평가는 교육 여건이 우수한 상위권 대학들이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4년제 대학 227곳 중 1차 평가를 통과한 45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로·취업·창업과 관련한 대학 역량과 재학생 만족도, 취업률 등을 종합 평가해 최우수, 우수 대학과 청년드림대학을 각각 선정했다.

중앙대 2018학년도 정시모집 이렇게 선발한다

중앙대는 201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1,508명을 선발한다. 가군, 나군, 다군 모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여 수험생이 모든 군에서 중앙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가군에서는 산업보안학과(인문), 의약부 등 370명을, 나군에서는 국제물류학과, 공공인재학부, 산업보안학과(자연), 공과대학 등 629명을, 다군에서는 글로벌금융, 경영학부, 창의ICT공과대학 등 509명을 선발한다. 공과대학, 창의ICT공과대학, 생명공학대학은 수능일반전형에서 학과 단위가 아닌 단과대학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며, 단과대학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2학년 진급 시 소속 학과(부)가 결정된다. 금년부터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시모집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변경되었다. 인문계열은 국어 40%, 수학 가/나 40%, 사회/과학탐구 20%가 반영되고, 자연계열은 국어 25%, 수학 가 40%, 과학탐구 35%가 반영된다. 이 외에 절대평가 방식의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한다. 영어는 20점 만점에 2등급은 19.5점, 3등급은 18.5점 등 등급별로 차등화된 점수를 가산하며, 한국사는 4등급까지 10점 만점을 가산한다. 지진으로 인해 수능 일정이 1주일 연기되면서 정시전형 일정도 1주일씩 연기되었다. 중앙대학교 2018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18년 1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월 9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눈에 보는 2018학년도 정시모집 입학전형

모집시기	전형유형	전형	정원 내	정원 외	계	전형요소	수능최저
수시		전체	3,085	242	3,327		
정시	수능 위주	일반전형(가, 나, 다)	834		834	수능 100%	×
		동일계전형(나)	50		50		×
		고른기회	특성화고졸업자전형(나, 다)		35		35
	실기 위주	실기전형(가, 나)	370		370	실기, 수능 (모집단위별 상이함)	×
학생부 위주	학생부종합 - 고른기회	농어촌학생(가, 나, 다)		126	126	서류 60% + 수능 4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 나, 다)		83	83		
		특성화고졸재직자(나)		10	10		서류 100%
정시 전체			1,254	254	1,508		
합계			4,339	496	4,835		

※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모집인원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추후 공고합니다.

7개 특성화학과 수능 일반전형 입학생 전원 4년 전액 장학금 지급



수능 일반전형으로 특성화학과(공공인재학부, 글로벌금융전공, 국제물류학과, 산업보안학과)에 입학 시 전원 4년 전액 장학금이 지급된다. 또한, 단과대학으로 모집하는 공과대학과 창의ICT공과대학의 경우, 수능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에게 1년 전액 장학금 지급 후, 이들 1년 전액 장학 대상자가 2학년때 특성화학과(소프트웨어학부, 융합공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진학 시에 나머지 3년에 대해서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미래선도 학문단위 중앙 특성화학과 BIG 7

- 산업보안학과**
창의융합형 보안리더 양성의 요람
 유무형 산업자산보안 발전과 함께 관련 전문 인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학문단위로 산업보안 경영, 범죄예방/조사, 법제도, 기술 등 다차원 접근을 통해 연구한다.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산업보안연구센터'를 발족한데 이어,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 등과 산학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산업보안학과를 관련 교육 및 연구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차별화된 산학연계 현장실습교육 실시
 에너지시스템공학부는 에너지시스템 엔지니어링에 관련한 다양한 공학 분야의 융복합 교육을 통한 원자력, 화력, 친환경, 전력 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마련된 학문단위다. 산학연계 현장실습교육은 글로벌 에너지산업과 첨단 연구분야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기계, 전기,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시되며, 에너지 관련 산학협력기업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 국제물류학과**
해운연구분야 세계 7위
 글로벌 무역과 물류 시장에서 활동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문단위다. 국제무역물류인력양성에 국가적으로 중심적 위치에서 쌓아온 기반을 기초로 국제물류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 해외대학, 국내 글로벌 물류기업과의 교육 및 연구의 연계를 통해 글로벌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 공공인재학부**
행정학트랙과 정책학트랙을 통한 공공분야 핵심엘리트 양성
 공공인재학부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공공부문의 창의적인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행정 및 정책, 법률을 아우르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공익과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인재상 구현을 목표로 만들어 졌다. 공공인재학부에서는 입학 후 4년간 전공을 구분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통해 보다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행정고시 및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행정학트랙과 국가정책전문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정책학트랙, 두 개의 트랙 중 하나를 전공으로 선택하여 공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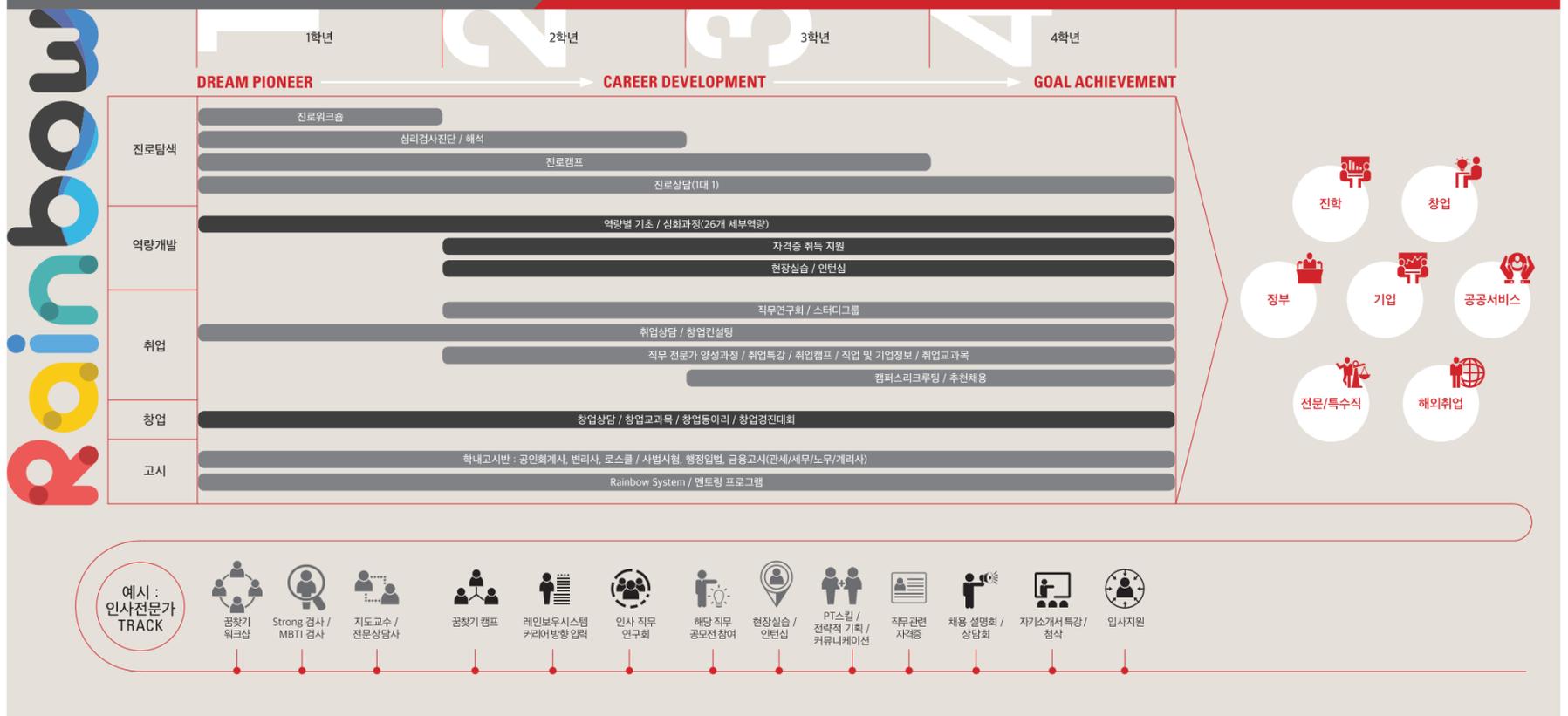
- [인문, 자연] 산업보안학과
- [인문] 글로벌금융, 국제물류학과, 공공인재학부
- [자연] 소프트웨어학부, 융합공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 소프트웨어학부**
고급 소프트웨어 전문가 육성
 시대가 원하는 창의적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전공, 융합공학부 디지털이미지전공 등을 150명 정원의 소프트웨어학부로 확대 개편했다. 인공지능, 스마트IT, 엔터프라이즈SW, 디지털미디어 4개 트랙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학부는 소프트웨어 산업 시장을 주도할 동력이 될 것이다.
- 융합공학부**
독창적 연구능력을 보유한 융합공학인 양성
 융합공학부는 학문 간의 벽을 허물고 타 학문 영역의 강점을 공유하여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고 디자인하는 융합기술군으로서 바이오메디컬공학, 나노바이오소재공학을 세부전공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융합기술을 교육하여 미래형 신개념 융합기술을 효율적 구현을 통한 기초 및 응용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대학 및 국가의 융합 관련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 경영학부 글로벌금융**
금융전문가트랙과 재무회계전문가트랙을 통한 금융전문가 육성
 경영학부 글로벌금융 프로그램은 높은 부가가치 창출 능력으로 인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금융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중앙대학교가 혁신적 교육과정과 파격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아심차게 출범시킨 전공이다. 금융전문가트랙과 재무회계전문가트랙의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된다.



중앙에 첫발을 들인 순간,

진로부터 — 졸업까지
중앙대만의 레인보우시스템으로 책임집니다!



글로벌 IT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CAU CREATIVE PLATFORM

중앙대는 2014년부터 'Global Creative University'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학생기업 배출 및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세계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우수성과 창출, 전국 최고 수준의 창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2015년 6월 Creative Studio(글로벌 창업교육) 개소, 2016년 2월 Creative Factory(시제품 지원) 개소에 이어 마지막 단계인 복합 창업지원 공간인 Creative Complex를 2016년 11월 개소함으로써 글로벌 창업교육,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창업보육, 창업펀드 투자 등 원스톱 플랫폼을 완성했다. 지난 2년간 꾸준히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6년도에는 학생들이 미국 최대의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 'kickstarter 클라우드 펀딩'에 진출하여, 목표액 대비 200%를 웃도는 매출 창출 및 실리콘밸리 내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 등 다양한 성과들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아이템은 있지만 자금이 없어 시제품 제작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국내 유수의 VC들과 MOU를 체결하여 132억원에 달하는 창업펀드를 조성하고 더불어 글로벌 기업과의 1:1 매칭을 통해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청년창업지원의 선도모델로서의 위상을

을 구축했다. 이와 같이 창의적이며 글로벌 실무 감각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하여 글로벌 기업들과의 맞춤형 산학협력 창업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크리에이터트랙(Creator Track)'은 구글, 유튜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과목으로 유튜브를 활용한 마케팅 방법론 및 수익모델 창출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전문가들과 실제 동영상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운영하는 교과목으로 MS애저(Azure)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사업에 필요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함께 제작해 구현하는 엔터프라이즈트랙(Entrepreneurship Track),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중앙대 교수진이 함께 IT 트렌드에 따른 21세기 기업 환경에 대비하는 교육과정인 크리에이티브 달란트 트랙(Creative Talent Track) 등을 운영한다. 이들 글로벌 기업과 중앙대는 공동으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 학생의 경우 해외 구글, 유튜브 스페이스에 파견 및 공동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대학 혁신의 아이콘,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 투자 국내 최대 규모 100주년 기념관 개관, 광명시 종합병원 건립 예정



두산그룹이 법인에 참여한 2008년 이후 이루어진 약 3,000억 원 수준의 대대적 시설투자는 중앙대 캠퍼스 지형 자체를 바꾸는 '상전벽해'를 이뤄냈다. 2009년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2010년 기숙사 신축, 2012년 약학대학 및 R&D센터 신축 및 퓨처하우스 신축, 2013년 파이퍼홀 리모델링 및 증축, 2015년 제2기숙사 신축, 2016년 100주년기념관(310관) 완공이 이루어졌다. 중앙대는 100주년기념관(310관) 개관으로 교사확보율이 130%에 달하는 등 교육 및 연구환경이 크게 개선되

어 교육 및 연구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 광명시에 중앙대학교병원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광명시 시책사업인 '광명 의료 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종합병원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중앙대병원은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89 일원 부지에 오는 2021년 3월까지 약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하게 될 예정이다. 광명시에 건립될 병원은 건축 연면적 8만2천600㎡(25,000평), 약 700병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 급 종합병원으로, 뇌신경, 심혈관, 척추, 관절, 소화기암 등의 중증질환

을 중심으로 하는 진료 특성화를 통해 광명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서부권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처럼 재단의 대대적인 투자와 요즘 학생들이 가장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등이 수험생들로 하여금 '믿고 맡길 수 있는 대학', '졸업 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학' 등의 기대감으로 이어져 매년 입시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지원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